

한·일 FTA는 벤처 경쟁력 강화 촉진

글 _ 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 추세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184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있고, 현재 70여 개의 신규 협정이 추진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FTA 미체결국인 우리나라의 통상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동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 감소, 내수 부진 등이 겹쳐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경쟁국가들은 FTA를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GDP 대비 무역비중이 70%로 높으면서,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투자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감소추세에 놓여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초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동 로드맵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의 FTA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EU 등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FTA 추진위원회를 격상시켰고, FTA 관련 부처는 담당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FTA 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농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19 조원의 투융자사업과 더불어 농업 및 농촌환경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제수준 높은 일본과의 FTA는 산업경쟁력 한단계 높여줄 것

지난해 말 일본과의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거치면서 양국간 FTA 논의가 심화되어 왔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관세 수준이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주요 제조업종에서 국제경쟁력이 낮다는 점에서 한·일 FTA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과의 FTA에서는 농업문제가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관세농업개방 문제로 칠레와의 FTA 비준이 연기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칠레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 대상국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여러 기준이 있었지만, 우리 농업에 타격을 주지 않는 FTA 대상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들어 일본, 중국 등이 FTA 추진에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우리

수출 증진 기회로 활용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의 산업 발전에 우리나라가 한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일 FTA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일본과의 FTA로 우리 산업에 경쟁촉진과 전략적 제후가 확대되면서 산업구조 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산업구조 조정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한단계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크거나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와의 FTA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산업내교역의 비중이 높을수록 구조조정의 폭이 줄어들고, 그 대신 특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FTA는 규모의 경제, 생산성 증대, 투자유입과 기술이전 등으로 동태적 효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일본과의 교역은 물론이고, 동남아, 미국 등과의 교역에서도 높은 산업내교역 비율을 보이고 있다.

벤처업계는 한·일 FTA로부터 이익 창출 기대

벤처산업은 첨단 지식집약산업(knowledge intensive industry)으로, 새로운 지식이 동일산업내 기업간에 파급(spill over)되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이 용이해지고, 규모의 경제도 확대될 수 있다. FTA로 인한

시장의 확대는 수출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 결과 수출업자 및 교역국의 소비자가 혜택을 입게 된다. 따라서 FTA 체결로 가장 규모의 경제와 산업내 협력력이 가장 용이한 분야가 바로 IT산업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벤처업계는 일본과의 FTA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IT업계내에서도 부품업체들은 관세철폐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IT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는 해당 품목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단계적 접근방법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일 FTA 체결시 경쟁력이 있는 부품산업에 대한 관세철폐는 일정기간 유예하여 국내 부품산업의 붕괴를 막는 한편, 첨단 핵심부품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술장벽의 제거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의 체결을 확대하며, 우선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2단계인 인증의 상호인정은 국내제도의 보완 이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벤처업계는 일본과의 FTA를 통하여 일본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 중국, 미국 등 다른 지역 IT산업으로 진출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의 발전을 위해 일본과의 FTA 협정에 포함시킬 내용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아 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벤처업계는 FTA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FTA 추진을 요구함으로써 국내 FTA 추진 기반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美, 2004년 통신·건설·컴퓨터 칩 산업이 경제 이끌어

최근 미국 경제는 GDP 증가율이 2003년 연간 성장 전망치인 3%를 웃도는 4.3%를 기록하는 등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미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산업으로는 IT 관련 하드웨어 산업, 컴퓨터 칩, 건설, 그리고 통신 산업이 손꼽히고 있으며 제조업, 교육, 제약,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은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conomy.com이 전망한 2004년 산업별 생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의 생산은 7.2%, 칩은 3.1%, 건설은 4.5%, 그리고 통신 산업 생산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4.4%, 교육 3.7%, 제약 3.8% 그리고 항공 2.7%의 생산 증가를 보여 성장이 저조한 산업 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통신, 항공, 금융, 그리고 건설 산업들은 아직도 공급능력 보다 수요가 적어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이익을 깎아 먹고 있다.

정보출처 : www.kotra.or.kr

인도 IT시장 급성장 추세

인도 통신시장은 열악한 인프라 수준에도 불구하고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프라 시장은 2002년 4억 2300만불, 작년 5억 9100만불로 증가, 연평균 31.6% 성장했고, 장비시장은 2001년 9억 2800만불에서 2002년 11억 7100만불, 작년 13억 4600만불로 증가, 연평균 20.4% 성장했다. 2006년 통신시장은

유선서비스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무선서비스 시장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프라 시장은 작년 이후 연평균 16.2% 성장, 2006년 7억 7100만불, 장비시장은 15.6% 성장, 2006년 21억불에 이르고, 유선과 무선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13.7%와 38.3% 성장, 2006년 144억불과 51억불에 도달할 전망이다.

한편 IT시장은 2002년 45억불, 작년 51억 2400만불에서 2007년 110억불로 증가, 2002~07년간 연평균 19.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IT시장의 전세계 비중은 향후 급속한 성장을 보이며 2007년 0.9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출처 : 국가정보원

2004년 이탈리아 하이테크분야 소비 증가 전망

이탈리아는 하이테크분야가 여타 선진국보다는 다소 뒤처진 상태이나 최근 디지털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의 증가와 이 분야의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를 촉진 시키고 있어 2004년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2004년에는 유럽 축구전과 아테네의 올림픽 경기로 인해 대형 스크린TV의 판매가 큰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년 매출에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낼 제품으로는 LCD 스크린TV, 플라즈마 스크린 TV, DVD레코더, Pay TV를 위한 레코더,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인터넷을 위한 ADSL, MP3리더 등이다.

정보출처 : www.kotra.or.kr